

무등산권 지질·역사유산 세계명소화 시동

광주·담양·화순 등 참여 관광사업단 오늘 개소식…관광상품 제작·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무등산권의 세계적인 지질유산을 국제 관광 명소로 만드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앞두고 광주, 담양군, 화순군 등 인접 지역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관광 상품을 만들고 이를 지역의 소득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는 5일 “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단(이하 사업단)이 6일 오후 2시 전남대학교 지오컨벤션센터에서 개소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무등산권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 사업”은 지난 2월 광주시와 전남도, 화순군, 담양군이 대통령 직속 지

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됐으며, 전남도와 협약을 통해 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참여 지자체들이 협력해 무등산권역에 분포하는 세계적인 지질유산과 역사문화유산을 국제 관광 명소화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무등산권역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무등산권지질공원 통합 지질관광 활성화, 지질공원 명소의 대표 브랜드인 유네스코 지오브랜드 개발, 세계

화 추진사업으로 분류된다.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분야로는 무등산 지질명소와 역사문화명소를 연결하는 지오토레일 개발 사업이 추진되며, 여기에는 담양의 추월산, 화순의 운주사, 적벽, 공동화석지 등 주요 지질명소들이 포함된다.

또한 유네스코 지오브랜드 개발 분야에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역별 특화 브랜드 수요조사를 하고 선정위원회를 거쳐 광주, 담양, 화순을 통합한 공동 지오브랜드를 개발하게 된다.

세계화 추진 분야에서는 국내·외 중생대 백악기 주상절리대와 관련된 여러 국가의 연구진들을 초청해 심포지엄을 개최하

고, 국제 학술대회를 통한 학술적 가치를 홍보하는 등 무등산권역의 국제 관광 명소화를 이끌어내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광주시 김종열 공원녹지과장은 “내년 4월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1차적인 목표이다”면서 “인증 후에는 무등산권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하는 선도사업으로 무등산을 둘러싸고 있는 광주, 담양군, 화순군을 아우르는 국제적 지오브랜드를 구축해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전남대 정병석 총장, 사업단장인 허민 전남대 부총장, 무등산권지질공원 지자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하며 현판제막, 기념촬영, 사업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오광록기자 kroh@



5일 오후 영광 낙월도에서 문을 연 진달래(※)식당 앞에서 한정수 해양수산부 사무관 등 국민디자인단, 마을주민들이 낙월도의 번영을 위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남어촌축화지원센터 제공>

트레킹 유명한 영광 낙월도 맛집도 소문나겠네

진달래식당 개장…국민디자인단·주민 등 한자리

관광객 “맛 좋고 가격 좋고 경치도 끝내 주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책상에만 앉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공무원들이 떠나면 낙도까지 찾아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니 고맙고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5일 오후 진달래(※) 식당이 개장한 영광 낙월도에 오랜만에 주민들이 한데 모였다. 상낙월도와 하낙월도로 나뉘어 서로 ‘경쟁’하며 살아왔던 낙월도 주민들이 함께 모인 것은 기억에 없을 정도로 오랜만이다.

영광 향화도항에서 1시간을 가야하는 낙월도는 나지막한 산봉우리들이 있어 도시민들에게 트레킹코스로 인기가 높지만,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 관광객들의 불편이 컸다. 새우잡이에 종사하는 섬 주민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매달리느라 외지인들을 외면하고 불편하게 여겼다.

새우젓과 명품 경관을 지닌 낙월도에 해양수산부의 어촌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부터다. 해양수산부가 낙월도의 잠재력을 파악, 지난 6월 28일 ‘국민디자인단’을 파견했기 때문이다.

해수부, 한양대, 한양여대, 영광군, 한국농어촌공사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은 관광객을 위한 식당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바다가 보이는 해변에 조그마한 식당을 만들어 낙월도의 특산물로 요리를 만들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국민디자인단은 한정수 해수부 어촌어항과 사무관과 이민영 주무관, 강동선 한양여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박재민 한양대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교수, 윤성은 한국농어촌공사 어촌기획부장, 김영과장, 박성재 영광군 해양수산과장, 김윤수 주무관, 최주연 서울 위귀힐호텔 셰프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휴가를 얻거나 주말을 이용해 매주 낙월도를 찾아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페인트칠, 탁자 및 의자 제작, 내부 리모델링, 요리기구 설치, 음식 개발 등 식당 개소에 필요한 모든 일을 분담해냈다.

박영대 하낙월도 어촌계장은 “진달래식당 개장을 위해 공무원들이 페인트를 칠하고, 목수가 돼 가구를 만드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며 “이제 상낙월도, 하낙월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식당을 잘 운영해보겠다”고 다짐했다. 개소식 전 상낙월도·하낙월도 주민대표회의를 가진 주민들은 대표 8명으로 구성된 진달래식당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낙월도에 들어선 진달래식당은 오는 19일까지 시범운영기간에 진달래우동, 버무리(비빔밥), 팔랑개비피쉬앤칩스 등의 메뉴를 저렴한 가격에 판다. 새우젓 등 지역특산물도 전시·판매할 예정이다.

첫 손님인 노득용(54)·김원숙(53) 부부는 “낙월도를 찾아 가장 아쉬운 부분이 먹음만한 식당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며 “가격이나 맛은 물론 경치도 뛰어 나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고 호평했다. /윤현석기자 chadol@영광=이종윤기자

“아시아문학은 꿈을 담는 기록” 평화·연대…광주 선언문 채택

아시아문학페스티벌 폐막

“인간의 세상은 국적, 종교에 따라 다르지 않다. 서로 닮아 있고, 끊임없이 상호 작용한다. 우리는 미숙한 개인의 영혼 속으로만 함몰되어가던 문학을 인간의 대지로 다시 불러내고, 자기 확신만 앞세우는 고집스러운 언어들과는 싸울 것이다. 연대는 동질성이 아니라 차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관련기사 16면>

‘아시아의 아침’을 주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이 ‘2017 광주선언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2017 광주선언문은 기본취지를 밝히는 전문(前文)과 결의를 밝히는 세 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문학인이 견지해야 할 의지가 담겨 있다.

작가들은 “아시아의 문학이 인간의 상처와 꿈을 담은 기록임을 확인하고, 이를 인류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누구도 인간이 사는 꿈의 장소들을 세계의 변두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을 계기로 광주에서 서로 발견하고 발견당했다”며 “아시아 작가들의 창조적 언어를 통해 생성될 새로운 문학의 장은 여기서부터 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에 기여하는 문학을 지지한다. 우리는 성, 인종, 계급,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며 “모든 인간이 각각의 언어와 문화 전통에 대한 존중심을 갖도록 연대하고 서로 도울 것”

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선언문 채택에 앞서 오전에는 도종환 문화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의 아침’ 본행사가 열렸다. 조직위원장인 고은 시인의 대화사, 도종환 장관의 축사, 아시아문학상 시상식, 수상자인 몽골 우리양카이의 수상 소감, 축하 공연 등이 펼쳐졌다.

이번 페스티벌은 아시아의 역사적 지류와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프리카 최초 노벨상 수상 작가인 월레 소잉카를 비롯한 세계 거장들과 노이슈타트 국제문학상을 수상한 중국의 뉘뎬 등 아시아 작가들, 한국의 고은 시인 등 국내 문인 30여 명이 참가해 우의를 다졌다.

첫날 5·18민주지 참배를 시작으로 안토니오 콜리나스(스페인), 끌로드 무사르(프랑스), 브레이튼 브레이튼바흐(남아프리카공화국), 잭 로고우(미국) 등 외국 작가들의 강연이 있었다. 고은의 시와 나운선의 재즈 보컬이 어우러진 ‘산과 바다에 우리가 살고’ 특별 공연, 서로의 작품을 읽어주는 ‘크로스 낭독 공간’ 등이 이어졌다.

이후 작가들은 교류와 소통을 위한 시간으로, 무등산과 죽녹원 일대를 돌아보는 전라도 여행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 페스티벌은 주제가 지나치게 무거워 데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한 작가들이 설 수 있는 무대도 많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향후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을 아시아의 대표 문학축제로 이끌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가 귀담아야 할 지적으로 보인다. /박성천기자 skypark@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4일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2017 전남 국제 수목 프레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아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이낙연 총리, 국제 수목 프레비엔날레 찾아

2018 전남 국제수목화비엔날레 사전행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4일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수목 프레비엔날레’를 찾아 작가들과 수목작품 ‘아취합작도’를 공동 제작했다.

이 총리의 이날 전남 방문은 취임 후 3번째로, ‘2017 국제 수목 프레비엔날레’를 관람하기 위해서였다. 앞서 지난 6월 10일과 18일에는 진도 세월호 수습 현장과 무안 관정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수목 프레비엔날레는 이 총리가 전남지사 재임 시절 도정 2대 프로젝트로 추진한 ‘남도문예 르네상스’의 선도사업인 ‘2018 전남 국제수목화비엔날레’의 사전 행사다.

이 총리는 프레비엔날레 주 전시장인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수목 작품 공동 제작에도 참여했다. 이철주·하철경·김대원·김현진 등 작가들이 우아한 정취를 담

아낸 ‘아취합작도’(雅趣合作圖)에 ‘남도에 혼’(南道藝魂)이라는 휘호를 직접 남겨 남도 예술의 자부심을 표현했다. 이 총리는 수목 프레비엔날레의 또 다른 전시장인 진도 운림산방을 방문해 ‘남도와 맥전’, 박영보 화백과 복한 국적의 이건의 화백 작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분단의 역사, 예술의 상봉전’을 관람했다.

이 총리는 “선도적인 수목 작품들이 전시돼 있어 색다르고 신선하다”며 “올해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2018 전남 국제 수목화비엔날레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 전남 국제 수목 프레비엔날레’는 목포 갯바위권과 유달산권, 진도 운림산방권 등 3개 권역, 8개 전시 공간에서 오는 12일까지 열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물막,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

송정리 부동산 매물

- ▶ KTX 개통 최대 혜택지
- ▶ 투자가치의 3개소
- ▶ 11억, 12억, 19억
- ▶ 각 코너 위치

※ 2018년 초 복합환승센터 착공예정

신안군 염전 매물

- ▶ 대형부지 (만오천평)
- ▶ 태양광 부지로 검토 필요
- ▶ 투자가치

문의 010-5236-7458

2018학년도 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 [주1~2회, PM 7~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 논문제)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와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출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관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래밍 등 혁신적인 교육과정 시스템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입학원서 작성	2017. 11. 6.(월) ~ 2017. 11. 20.(월) 09:00~18:00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우편 2017. 11. 6.(월) ~ 2017. 11. 20.(월)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창구 2017. 11. 6.(월) ~ 2017. 11. 20.(월) 09:00~18:00
전형일	2017. 12. 5.(화) 10:00~
합격자발표	2017. 12. 21.(목)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환경기능융합/식품·외식산업학/지역환경자원공학/전자컴퓨터공학(계약학과)
-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Y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